

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어느덧 시간이 지나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날이 코 앞에 다가 왔습니다. 저희는 지난 토요일, 5개월간의 제주에서의 요양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(22일)에 오랫동안 떠나있었던 선교지로 복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

6월 말,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. 당시 2주간의 자그레브 방문을 통해 체류에 관한 일처리를 잘 하였고, 또 반가운 현지의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저희가 맡겨둔 사역과 일터, 보금자리가 그들의 섬김 가운데 잘 보존되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.

안식년을 시작할 즈음에는 많은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. 그 계획 속에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감사를 전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수술과 치료, 회복에 여념이 없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. 얼굴을 대면하여 보진 못했지만 영으로 교통하길 원하고 더욱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이후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 만나길 원합니다.

김 선교사의 건강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예전처럼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. 현지에 돌아가셔도 당분간은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.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. 아울러 김 선교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

다음 선교편지는 연말에 자그레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갖고 만나길 소망합니다. 주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

2023년 8월 17일. 경산에서

김경근 문정미 선교사

